

할렐루야,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온전한 헌신과 심금을 울려 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5년 1월 1일 (수) 제 1999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발행인 신년 칼럼

재림의 준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슴 벅찬 새해가 도래(到來)했건만,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해가 소망인 것은 주님의 재림이 더 한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무엇을 집중하고 싶은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재림의 준비, 모두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양병십년 용병일일(養兵十年 用兵一日)'이란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양성(養成)하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그 병사를 사용(使用)하는 데는 하루도 충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개미도 양식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여 어려운 때를 지낸다고 성경은 일러 줍니다. (잠 6:7-8)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짧은 여행에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크고 작은 낭패(狼狽)를 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 25:10) 재림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만난 비애(悲哀)보다 더 슬픈 일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 28:19a) 그렇습니다. 제자됨과 제자도는 모든 민족에게 역사 나머에도 필요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자입니다. 영원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제자도는 재림의 준비에 중요한 우선순위에, 역사의 내재(內在)와 초월(超越)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더 가까워진 신년(新年), 세월을 아끼며 마지막 때를 제자 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여름도, 10년도, 1000년도 아닙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 25:34) 하나님은 준비를 만홀(漫忽)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은 "창세로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사(例事)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終末)이며 동시에 영원무궁(永遠無窮) 시대의 진정한 개시(開始)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준비는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힘써 봉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등 역사 안에서 행해야 할 중요한 것들로 부단(不斷)히 채워야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나머에 필요한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맞이하는 교회에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새해에는 당신이 주인이 되옵소서!



손문식 시인 (은혜한인교회 전도사)

해가 밝아 옵니다. 어둠을 뒤로하고 아픔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당신이 주인이 되옵소서!
홀로 걸어왔던 길들이 무척이나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좁은 길 시바가의 길일지 언정
당신이 가신 길 좁고 버거워	당신을 따르고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조금은 쉬운길을 택하려 넓은 길로 왔는데	비록 그곳이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일지언정
어둠이 깔린 그곳에서 방황하며 두려움에 홀로 섭니다.	주인되신 당신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걷는 길 쉽고 평안 할 줄 알았는데 결국 광야에서 홀로 떠납니다.	해가 밝아 옵니다.

약력: 1968년생
전주대학교 1992-1995년 영문학과
바이올라대학 1995-1999년 영어과
탈보신학교 신학석사 2001-2005년

수상경력: 2004년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 18회 수필부문 안경 너머로 본 로맨스, 당선
2020년 재미시인협회 "시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가작
2024년 6재미 시인협회 "시 한 객" 우수상



시론 최해근 목사



신년특별설교 심상은 목사



신년축사 신년축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아리 | 시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9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선교 140주년 The 140th Anniversary of Appenzeller's Mission

미동부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

IN COMMEMORATION OF THE 140TH ANNIVERSARY OF APPENZELLER'S MISSION IN EASTERN US

뉴욕

- * 일시: 2025년 1월1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 장소: 뉴욕 그레잇넥 교회 (양민석 목사)
715 Northern Blvd, Great Neck, NY 11021
연락처: 917) 326-1723

• 축하공연: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 설교: 유경동 목사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주관: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 대회 준비위원회

- 위원장: 장재웅 목사 • 명예위원장: 조영진 감독, 박정찬 감독 • 뉴욕대표: 양민석 목사
- 뉴욕 특별협력위원: 김정호 목사, 김종일 목사
- 뉴욕 준비위원(목사): 감미영, 김남석, 김사무엘, 김재현, 김진우, 김택용, 이선규, 이요선, 이용보, 이용연, 인성재, 정광원, 지인식, 차철회, 홍성진

기념예배 및 공연 [Commemoration Worship & Performance]

MTU CHOIR
[지휘: 김용화, 총무: 안성민]

펜실베이니아

- * 일시: 2025년 1월14일 화요일 오후 6시
- * 장소: 랭카스터 제일연합감리교회(아펜젤러 선교사 첫 파송교회)
29 East Walnut St. Lancaster, PA 17602 연락처: 717) 394-7231

뉴저지

- * 일시: 2025년 1월1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 장소: 뉴저지 더바인교회 (구 뉴저지 연합교회)
147 Tenafly Rd. Englewood, NJ 07631 연락처: 201) 509-0685

시론

다가오는 승자만의 시대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오래전(1998년)에 나온 공상액션 영화로 '솔저'(soldier)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래사회에서의 전쟁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에 특수화되도록 유전적으로 개조된 군인들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이들 군인들은 철저하게 경쟁에서 이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조직에서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이들은 같은 훈련병끼리의 경쟁에서 지게되면 가차 없이 우주쓰레기장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런 처절한 생존경쟁 제도 속에서 살아남았던 병사에게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질문하자 그가 내뱉은 말은 "두려움과 훈련"(Fear and Discipline)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더 강도높은 훈련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군인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단 두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두려움과 훈련'이 되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영역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명을 건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투쟁의 중심에는 더 이상 진리도 국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야 상대를 누르고 권력투쟁에서 최후 승자가 될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은 어떻게 될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새로 시작될 정부의 효율성을 평가할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중심가치를 논여겨 봅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챔피언보다 프롬권을, 졸업식의 최우수성적을 거둔 학생보다 운동선수를 칭찬하는 문화에선 최고의 엔지니어가 탄생하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평범성이 미국교육의 중심가치가 되어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경쟁으로 뚝뚝하게 키워진 미국 기술자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시대 추세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리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가 될 때 그 사회는 절대로 양보나 협력을 통한 따뜻함과 다수가 힘을 얻는 사회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약자들을 챙겨주고 뒤쳐진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뛰어가는 그런 사회는 승자독식의 경쟁사회를 통해서 결코 만들어질 수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숫자화된 점수표, 곧 학업성적과 연봉금액과 소유자산액수에 의해 인간의 능력과 존귀함이 결정되는 매정한 사회를 향해 효율성이 좋다는 이유로 우리 스스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고민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서 그 어떤 나라도 비껴갈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 흐름을 거부하는 어떤 국가라도 국제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며, 그 결과 기술과 생존경쟁에서 패배자로 추락하여 중류 혹은 하류 국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이런 거대한 흐름의 밀바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임을 직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타락된 죄성이 경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약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약자들을 챙겨 자신의 걸음을 뒤에서 걸으시는 주 예수님의 손과 발을 봅니다! 살렘

hankschoi@gmail.com

목회단상

해야 할 챌린지와 잘못된 챌린지를 하는 사람들



한일철 목사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담임/NC)

개인적으로 저는 비행기를 자주 그리고 많이 탑승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 안에서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자리에 앉아 제일 먼저 하나씩 감사기도를 하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비행기 좌석이 매우 드럽다는 말을 들었기에 좌석 벨트와 앞에 있는 것들을 준비해 간 것으로 깨끗이 닦아냅니다.

말씀을 전하러 가는 곳이라면 아이패드를 꺼내 준비한 설교 원고를 계속 보며 수정할 것이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 합니다. 또한 구상된 설교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윤곽을 마련해 미리 준비해 둡니다. 남은 시간은 셀프로 성경을 읽고, 장거리 여행 때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영화도 봅니다.

기내 음식을 주면 거의 빼놓지 않고 먹습니다. 좁은 공간과 긴 시간에서 먹는 즐거움은 참으로 큼니다. 밤 비행기를 탄 적도 많은데, 요즈음은 비행기 안에서 어느정도 잠을 청하지만 예전에는 단 5분도 잘 수 없었습니다. 기내에서 잠을 잘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복도에 있는 좌석을 좋아하는데 자주 일어나 통로를 걷고 화장실도 감으로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변화를 주려고 애씁니다. 매번 하지는 못하지만 옆에 사람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잠시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착륙합니다. 착륙하기전 하나씩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잘 착륙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유는 이착륙 하려고 할때 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거리 비행기에서 '로도깅(raw-dogging)'을 실천하는 승객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소셜미디어(SNS)에 "로도깅 10시간 성공. 개인 신기록 달성. 내 정신력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같은 글이 인증샷과 함께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로도깅(raw-dogging)'이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지 않아야 하고 항공 지도를 보는 것을 빼면 어떠한 기내 엔터테인먼트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내식은커녕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눈을 감거나 잠을 자도 안 되고 심지어 화장실 사용도 하면 안됩니다. 로도깅은 비행기에 탑승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오로지 허공만 응시하는 것을 일컫는데, 최근 유행하는 '멍 때리기'의 새로운 버전으로 '비행멍'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일을 저처해서 비행기 안에서 도전하는 것일까요? '로도깅'은 올해 여름부터 유럽·미국 등 서구권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에 공개된 애플TV+ 드라마 '하이재킹'에서 주인공 샘 벨슨(이드리스 엘바)이 두바이에서 런던으로 비행하는 내내 조용히 정면을 응시하는 장면이 화제를 모았고, 이를 따라 하는

영상과 성공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면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특히 MZ 세대 남성을 중심으로 유행 중인데 호주의 온라인 문화 전문가 조시 스투어트는 "강해 보이고 싶은 남성들에게 새로운 테스트(챌린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양의 한 심리학자는 "미디어가 주는 자극에서 벗어나 긴 시간을 보내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기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차츰 편안해질 것"이라고 권하지만 로도깅(raw-dogging)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일단 기내식을 먹지 않으면 마약 밀수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세판 당국은 마약 밀수범을 색출하기 위해 기내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승객 명단을 항공사로부터 받아 특별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밀수범들이 마약 운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 콘돔에 마약을 넣고 삼키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기내에서 식사를 하면 콘돔이 터져 죽을 가능성이 있어서 밀수범들은 기내식을 먹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조한 기내에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탈수 위험이 크고 비행 중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시차 적응이 어렵고 신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장거리 비행 중 자주 일어나서 하는 이유는 만약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심부정맥 혈전증)'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가 붓고 아프거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방치할 경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가슴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 본 것을 무작정 따라하며 챌린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잘못된 챌린지는 너무나 많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에 챌린지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 따라 신앙적 챌린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전 정신은 매우 중요하나 인생에서 어디에 도전하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8)

우리는 세상 미디어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새롭게 시작된 2025년 한 해에 도전정신을 갖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생산적인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도 한국에서 목적이진 짐을 향해 오는 비행기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므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맛있는 냄새가 풍깁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스튜어디스가 저에게 반갑게 묻고 있습니다. "Chicken or Beef?"

hanusa1962@gmail.com

교회 행사 | 각종 집회
부활절 성탄절 안수식
배너 & 현수막 맞춤형 주문 제작 업체
당일 제작 및 배송 | 무료 디자인 제공
influsign.com info@influsign.com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증실교
* 목회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
* G2G Mission Center (G2G선교회)
* 감사나눔 공동체
* 감사나눔리더(임원) (2023.8-현재)
* 저자: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세미나, 간증실교 문의: g2gmission@hotmail.com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사랑한인교회 (LA 한인타운)
사랑한인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부교역자와 행정간사를 청빙합니다.
* 파트타임 부교역자 * 파트타임 행정간사
자격: 전도사, 목사 믿음이나 좋은 평신도도 가함
접수 및 문의: lovekrch@gmail.com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만큼 크게 꿈을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하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사명과 비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 왔다가 성공하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가운데서도 건강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쓰러지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항상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도전하면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지역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12명중에 10명은 가나안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작게 보이고 괜히 들어갔다 잡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 역사에 도전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 역사에 도전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미래를 던져버린 보통사람들의 눈을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역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1.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렘은 이미 승리자로써 가나안을 다녀왔습니다.

13장 30절에서 갈렘은 비록 여호수아와 한 사람밖에 없는 지혜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갈렘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음을 장담합니다. "비록 그들이 강하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소리칩니다. 하나님 주실 복에 도전하는 자들은 내일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들에 부딪혔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굴복해 버립니다. 간절한 꿈을 갖고 있으면서도, 반드시 성취하고

지는 바로 승리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그림이 있게 한 정주영 회장에게는 반대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 시절 때 노동자 합숙소는 그야말로 빈대의 집합소였다고 합니다. 매일 빈대에 뜯기니까 밥상 위에 올라가 있는데, 잠시 뜯 한가 했더니 이내 빈대가 밥상 다리로 기어 올라와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밥상 다리 네 개를

사람들입니다. 실패해도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르지 않으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온 10명은 그곳 상황과 현실만 보았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현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련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렘의 가슴에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

바울도 끊임없이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장 13절).

새 역사를 도전하는 자들은 말 자체가 다릅니다. 이길 힘도 내 말에서 시작되고, 문제를 넘어가는 것도 내 말에서 시작되고, 새 역사를 향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내 말에서 시작합니다.

평상시 미래를 향한 내 입술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입에 달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이 보일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말 한마디가 내 영혼을 지배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미래를 펼칠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형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시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 새해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새해 아침에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받을 은혜에 대해 미리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주십니다. 새해에는 스스로 삶의 한계를 만들지 말고 원하는 대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이 되시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내 스스로 미리 미래를 정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는 내 논리를 하나님한테 납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값어치를 너무 험값에 매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역사를 도전하는 자는 메뚜기 같이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들을 통해 새 역사는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대망의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혁명을 일으키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특별설교

새 역사는 도전하는 자의 몫
민수기 14 : 8절



심상은 목사
OC교회협의회 직전 회장 / 갈보리선교교회 담임

“새 역사를 도전하는 자는 메뚜기 같이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실은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스스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없고, 꿈을 갖는 것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일찌감치 그어놓고 사는 게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분수에 넘치는 것을 시도하면 낭패를 본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라가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절대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지도 않는 사람은 나무를 보고 오를 수 없는 나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도해서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한 가

물 담은 양재기 넷에 하나씩 담귀 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나 빈대들은 자신을 물기 위해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간 다음, 자기를 목표로 똑 떨어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정주영 회장은 하찮은 빈대도 물이 담긴 양재기라는 장애물을 뛰어 넘으려 그토록 전심전력으로 연구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제 뜻을 이루는데, 나는 사람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나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 시도해 보고 실패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전도 해보지 않고 벌써 2025년 새해에 실패자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말은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패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은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앞길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렘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발견했고, 내일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렘은 옷을 찢으며 담대히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약속이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가슴 터지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새 역사의 도전자는 현재의 고난 때문에 미래의 목

입니다.

새 역사의 주인공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거민을 삼키는 땅을 짓고 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냅니다. 메뚜기 정신을 대장부 정신으로 바꿔버립니다. 새 역사에 도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의 축복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3.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도전합니다.

갈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 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은 할 수 없다는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그 두 명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십니다.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아가페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1. 지원 요건

- 1)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후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 목사 안수후 미국에서 담임목사 및 부목사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 3)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신 분으로 만 55세 미만인 분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포함)
- 2)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 3) 목사안수 증명서
- 4) 최근 설교 2편 (온라인 링크)
- 5) 추천서

3. 서류 제출 마감일 2025년 2월 10일

4. 유의 사항

- 1)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련하여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3) agapenskim@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 첨부 file 은 PDF file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덴버제자교회 2대 담임목사 청빙 공고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위치한 덴버제자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미국장로회 서남노회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에 속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본받아, 2004년 7월 11 일에 창립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섬겨온 교회입니다.

2025년 담임목사님의 은퇴 일정으로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위에서 바른 성경적 리더십과 복음적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새로운 2대 담임목사님을 청빙 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이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이중언어(한/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고 미국내 체류 및 목회활동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목사 안수 후 북미지역에서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

소정의 양식은 덴버 제자교회 웹사이트 (denverjeja.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목회계획서 1통, 자필 이력서 1통, 신학교 졸업 증명서 1통
소속 교단의 노회에서 발행한 목사 안수 증명서 1통, 추천서 1통,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영상 1편

제출마감

2025년 2월 28(금)일까지 (미국 산지시간)

보내실 곳

이 메 일 : denverjeja8390@gmail.com
우편 주소 : Choong Joh, 9249 S. Broadway Suite 200, Room 379
Highlands Ranch, Colorado, 80129
배달사고 방지를 위해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이 메일로 접수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제출된 서류는 청빙 심사에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되며 청빙 활동이 마치는 즉시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모든 문의와 안내는 denverjeja8390@gmail.com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라!



고태형 목사 (ECO 한국교회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치노힐스 선한목자교회)

하나님께서 복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싸운다고 하면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표현입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성가곡 속에서 '삼백 명의 용사'라는 표현은 너무나 익숙한 용어입니다. 용사는 용맹한 군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대적들과의 싸움이 이들 300명의 군인들이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되었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이 괴롭히도록 7년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랜 고통 후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지도자를 세우 주셨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사막 부족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무려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향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 번에 걸쳐 귀가 조치를 시켜 300명만을 남

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삿 7:2)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갈 때 사용한 무기는 나팔, 빈 항아리, 햇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삼백명이 일당 백을 하는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적군과의 싸움에서 오직 적은 숫자의 군사들을 기드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금년에 자원이 부족하고, 일손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전 1:29의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한 해를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김영하 목사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장, 살롬선교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께 새해에 강건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성도님들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더욱 열심히 전도하여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서 비 기독교인들

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성경에 반하는 각종 사상과 제도들이 무너지고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지며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각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살람!

주님이 맡기신 사역, 하나씩 감당하는 한해



송정운 장로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회장, 뉴욕새교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2025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자님들과 미주한인동포 사회와 모든 미주한인크리스천들에게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2024년은 많은 미주에서 살아가는 한인분들에게 희망과 실망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겹쳤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2025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많은 선교, 구제의 역사가 우리 주위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뉴욕한인장로연합회에서 15회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귀중한 주님의 사역에 섬김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저희 장로연합회는 대뉴욕 지역에 산재한 교회에 출석하는 시무, 원로, 은퇴, 협동, 무

임, 사역, 명예 장로님들과 장로제도가 없는 교단의 리더(장로)가 있는 교단의 장로에 준하는 이들이 연합하여 한인교회에서 섬기는 단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는 헌신적인 연로하신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2024년에는 저희가 항존직 사명자 컨퍼런스를 프라미스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뉴욕일원의 직분자들에게 실제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도전을 드렸습니다. 또한 매년 해오고 있는 다민족선교대회는 작년에도 퀸즈장로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장로님들의 끊임없는 헌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영광 올리고 행사를 통해 만든 선교기금으로 선교사역지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많은 장로님들이 70대 80대를 넘어 100세에 이르는 분들입니다

'공유, 공감, 공존으로 상생하는 2025년'



권덕이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감독)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엄청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일을 단언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의 공간 안에서 내일을 생각합니다. 세대간의 간극은 극대화되었고, 지식과 정보의 풍요가 관계성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진리는 물질의 세계에 갇혀 힘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것인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며 그것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맛 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은 공유, 공감, 공존으로 상생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민족과 국가에게 서로 힘이 되고 나눔으로 '감동이 있는 평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잠 16:3)

물댄동산 같은 인생(이사야 58:6-14)



박상돈 목사 (뉴저지교회회장)

2025년이 밝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올 한해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이 물댄동산이 되기를 축복한다. 물댄 동산은 주님이 주시는 최상의 축복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다. 물 댄 동산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첫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 물 댄 동산에는 언제나 물이 많이 때문에 생명이 넘친다.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이 번성한다. 식물은 언제나 푸르고, 열매가 풍성하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살 수가 없다. 아무리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좋아도, 물이 없으면, 금방 메마른 사막이 된다. 반면에, 물이 있으면, 사막도 생명력이 움트고 각종 열매가 풍성하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유타, 뉴멕시코, 네바다 5개 주는 원래 물이 없고 메마른 사막이었지만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때에 콜로라도 강의 물을 끌어와 후버댐을 막아서 물을 공급한다. 그물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사막이 옥토로 변하여, 미국의 60%의 채소와 과일이 거기서 생산된다. 우리 인생도 물댄 동산이

되면, 사막처럼 메마른 인생이 생명력이 있고,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된다. 우리 인생의 물은 예수님이다. 올 한해도 예수님께 꼭 붙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한다. 둘째, 물댄 동산 같은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다. 11절 상에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한다. 시편 23:3절에 "주님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올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축복한다. 셋째, 물댄 동산이 되면 영육간에 만족을 누린다. 11절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만족케 하신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영혼과 육신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 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사람들이 주님께 올 때, 중풍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린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던 수많은 굶주린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다. 주님이 물을 주시면, 가뭄이나 기근이 와도 걱정이 없다. 올 한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만족을 주시기를 축복한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권혁연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

다시 새로운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치열하게 살아낸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될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상하고 무너져 버렸겠지요. 이 때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는 베를린에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Reden an die deutsche Nation)'이라는 연설을 합니다. 먹고 살길도 막막했던 국민들에게 피히테는 '절망의 시대에 공장 몇 개를 새로 짓고 경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정신을 세워내고 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라고 설파합니다. 이 놀라운 연설이 독일 국민을 다시

일시켜 세웠습니다. 펜데믹을 지나고, 경제적인 위기를 지나며 정치적 위기와 혼동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누군가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가 나타나고 획기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슬한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버렸을지 모를 마음을 세우고 아득히 오래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던 꿈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새해에는 선하고 착한 마음을,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쁘게 한 걸음을 떼어 놓게 하는 꿈을 다시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쁨과 화평의 공동체



박태겸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캐나다동신교회)

무거운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있어야 휘지 않고 잘 자라듯이 인생의 마디인 12달을 합쳐 달라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결산하는 순간을 맞습니다. 많이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손해를 입힌 한해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4년 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은 우등상을 받지는 못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까지 살아온 가장 큰 상급인 개근상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의식과 실패감과 절망을 던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험이라고 영성학자 폴 푸루니에는 말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

다. 우리는 지난 시간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았으니 지금까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모험을 걸어봅시다. 후회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새해에는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모험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악한 세상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할 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게 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화평의 뛰노는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만남



이응도 목사 (재미고신 총회장, 필라초대교회)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분명하고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던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거하신 것이고,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이었던 그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은 예수님과 만남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해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변화된 사람 - 그는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2025년,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낱말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으로 낱마다 새롭게 되고, 낱마다 강건해지며, 낱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우리의 새로운 삶을 통해 증명되는 2025년의 삶을 기대합니다.

- Happy New Year 2025 -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함께 걸어가는 한 해



임영건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회장)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느끼고 가슴에 새기며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급변하는 지난 한 해, 우리 각자의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새해를 시작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기대와 설렘을 안겨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았던 기도 제목과 소망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충만, 말씀충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충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연합해 걸어갈 때 2025년도는 쌓아 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터치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걸으시는 여러분의 걸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히고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산소망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축복된 한 해가 열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눅1:37)

담대하고 강하게, 기도를 쉬지 않는 새해 되길...



정재호 목사
(C&MA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한인총회 감독)

지난 한 해도 온 교계 성도님과 미주크리스천신문의 독자 여러분들 열심히 그리고 멋지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2025년 한 해 동안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 구체적인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엡 3:16) 둘째,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되시기를 축복합니다.(엡 3:17) 셋째,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엡 3:17-19) 넷째,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충만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엡 3:19)

2025년에도 예년처럼 몇 번의 고비와 위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고비와 위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또한, 우리의 고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도 지극히 선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을 향한 기도줄을 놓지 말고,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함께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진유철 목사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장, 나성순복음교회)

2025년 새해를 맞이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소망의 확신이 모든 성도님의 삶에 더욱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끝이 있기에 새로운 시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이 끝났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하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었던 2024년을 지나며 우리는 이 시대가 참으로 말세임을 몸으로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점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로마서 15장 13절)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세를 향해 갈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영혼 구원을 위해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 있는 믿음으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2025년을 예측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렘.

회복과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새해



채양규 목사
(대필라델피아목사회 회장, 뉴비전교회)

새해가 밝았습니다.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위기에 처한 가정과 영혼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캄핑 거리에서 마약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가정과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믿음의 공동체로 성

장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영혼들과 가정을 만나고 그들을 섬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한준희 목사
(뉴욕지구한인목사회 회장, 뉴욕성원장교회)

202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해가 솟아올랐습니다.

2024년을 지내면서 지난해는 내 생애에 최고의 해였다고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까요. 지난해는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나간 실패 때문에 2025년을 맞이하는 모두에게 또 실패할 한해가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지난해보다 더 큰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2025년은 희망의 해요, 축복의 해요 승리의 해라고 선포하고 출발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왜 우리가 새해에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많이 넘어진 사람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성숙되고 발전된 삶과 사업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넘어진 실패가 밑거름으로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해를 소망으로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내라고. 내가 있다고.. 일어나라고 격려합

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수많은 격려의 말들보다, 같이 어둠의 터널을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진정한 용기와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한해를 뒤돌아보니 나 홀로 걸어온 한해는 아니었었나요, 그래서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아닐까요.

2025년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동행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갈 때 진정한 동행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마음으로 동행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불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해, 주님과 동행하시는 새해의 첫출발이 되길 축원합니다.

절망이라는 입구에서 희망이라는 출구로!



허연형 목사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프라미스교회)

2020년 3월 중순, 예고 없이 들이닥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늘 대하던 성도들을 만나기조차 힘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10분 남짓의 짧은 영상메시지를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카톡 방을 통해 전 성도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닫힐 때 창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영상물의 타이틀을 <희망의 속삭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애초에 본 교회 성도만을 염두에 두고 내부용으로 소박하게 시작한 일이 어느새 뉴욕의 담장을 넘어 일파만파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령 애청자들 가운데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타종교인과 무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서 보낸 사람에게 부메랑으로 다시 전달되는 진풍경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난날 로마 제국이 군사경제적 목적으로 닦아 놓은 길이 바울의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했듯이, 오늘날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이 거미줄처럼 깔아놓은 인터넷 하이웨이가 팬데믹 시대의 복음 확산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번덕스럽고, 불확실하며, 복잡할 뿐 아니라 모호하기까지 한 소위 '부카(VUCA) 시대'에 사람들은 에타게 묻습니다. "어디 희망을 파는 상점 없나요? 희망을 만들어주는 제 작소 없나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복음의 결론은 비참하고 망하고 깨지는 절망스런 종말이 아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되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종말입니다. 이는 성서의 하나님은 정죄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소망의 하나님(롬 15:13)이라는 사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의 출구(exit)는 입구(entrance)가 무엇으로 시작되든지 언제나 희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깊은 본심이기에 때문입니다(렘 29:11). 대망의 올사년 새해에 미주크리스천신문 모든 임직원들과 구독자들에게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 위에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2025

[밀레니엄 시대 성경적 목회 리더십]



김은수 목사
Global Reformed Seminary 원장 | 선교목회학 교수 | 선교사

들어가면서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심각한 기후와 환경 문제로, 그리고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의 처참한 전쟁과 분쟁의 문제로, 또한 심각한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문제들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아픔과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한숨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즉 사람들이 이 진리를 떠나 그저 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여, 반성경적, 탈성경적, 비성경적 사상들과 삶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이 밀레니엄 시대에, 주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목양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성경적 목회 리더십이 확고히 세워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는 이 혼란한 밀레니엄 시대의 바른 목회를 위하여 확고히 세워져야 할 올바른 성경적 목회 리더십의 원리와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제시하려 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리더'(Leader)와 '리더십'(Leadership)의 정의

밀레니엄 시대 바른 목회 리더십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정의'는 마치 건물의 기초와도 같아서 이것이 잘못되면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바로 세워질 수 없다.

먼저 필자는 성경적 관점에서 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도자란 확고한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헌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소통하며, 복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이루어가

는 사람이다.” 간단히 말해,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바른 영향을 끼쳐 그들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리더십”이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 내지는 영향력”을 말한다. 그래서 글로벌 리폼드신학교(GRS)의 제2대 총장이었던 사무엘 랄슨 박사(Dr. Samuel H. Larsen)는 리더십을 정의하기를, “리더십(Leadership)이란 인도, 동기 부여, 개인적인 모범 등을 통하여, 어떤 공유된 변화를 일으키는 비전의 실현화를 향하여, 사람들을 동원하고 준비시키는 예술이자 과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우리 시대의 목회자 가운데에는 지도력은 있으나 그 지도자가 문제인 경우가 많고, 반면에 지도자는 좋으나 지도력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허다하다. 밀레니엄 시대에 세워진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신실하고 유능한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적 목회자 리더십의 모델: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

매년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 미국 남침례교 목사이자 남침례교 신학원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 데버(Mark Dever) 박사는 그의 저서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Nine Marks of a Healthy Church)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리더십을 “BOSS 리더십”이라 정의한다. 여기에서 BOSS란 마크 데버가 다음의 영어 단어들의 첫 알파벳을 따와 만든, 예수님의 리더십 유형을 나타내는 특별한 용어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렇게 알기 쉽게, 그리고 정확히 설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데버가 설명하는 예수님의 리더십 모형을 오늘 날 목회 리더십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은 진정한 Boss 이셨다. 이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보스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Boss란

명령이 확실하며, 일관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말이 변하지 않으며, 그 지침과 명령이 단호하며,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나타난다. 예수님은 진정한 보스로, 그 가르침과 명령이 확실하고, 일관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았고, 모두에게 동일하셨다. 예수님은 “회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회개하라”고 확실히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가능한 사랑해 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확실히 그리고 일관성 있게 가르치셨다. 또한 예수님은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오늘 날 밀레니엄 시대의 목회자들이 올바른 목회를 위하여는 영적 지도자로서 먼저 예수님에게서 이와 같은 진정한 보스 리더십을 배워야 할 것이다. 오늘 날 영적 지도자로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의 말이 사람과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고, 일관성이 없으며, 얼마나 불분명한가?

둘째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모범(Out-front)이 되셨다. 예수님은 단지 입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신 것을 실천수행하여 몸소 행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 행하게 만드셨다. 밀레니엄 시대의 목회자들도 자신의 목회 자료서의 리더십이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이 먼저 자신이 가르친 대로 행하여,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당시의 종교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보시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되게 꾸짖으셨다.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 이 밀레니엄 시대에 진정한 목회자로서 바르게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하여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자신이 먼저 몸소 실천하여, 성도들이 그 모범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모범의 리더십’(Out -Front Leadership)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예수님은 든든한 공

급자, 지원자(Supporter)이셨다.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며, 성도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로 후원하는 자들이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잘 치루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들이다. 밀레니엄 시대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후원자 리더십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며, 또한 자신의 목양지가 어떤 말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급자의 역할을 다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신실한 연구자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자(Servant)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20:28, 막 10:45).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목회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섬기심을 본받아 섬기는 자이다. 절대로 예수 이름 이용하여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목양지에서 성도들을 바르고, 권위 있고, 일관성 있게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은 확고한 보스 리더십이 필요하나,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철저히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 밀레니엄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의 리더십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세상의 경제적 리더십, 혹은 회사의 CEO의 리더십을 사용하여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세상이 아무리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오고, 세상이 아무리 목회자들을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목회를 하도록 유혹하여도,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끝까지 섬기는 리더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섬김을 받으시는 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밀레니엄 시대에 필요한 성경적 목회자 리더십

이제 필자는 마크 데버가 주장하는 예수님의 4가지 리더십 모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밀레니엄 시대에 꼭 필요한 성경적 목회자 리더십의 유형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보려 한다. 먼저 전체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밀레니엄 시대에 올바른 성경적 목회자 리더십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상황 혹은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밀레니엄 시대에 꼭 필요한 성경적 목회자 리더십은 첫째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확고히 서서 바른 신학적, 교리적 토대 위에 서 있는 리더십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학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목회자 리더십은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 둘째는 철저히 복음중심의 리더십이어야 한다. 율법적, 종교적 리더십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중심의 목회자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목회자 리더십이어야 한다. 항상 먼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동시에 이 복음이 심겨질 밭으로서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되, 그 복음이 타락한 문화 안으로 잘 흘러 들어가, 그 타락한 문화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는 변혁적 목회자 리더십이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필자가 말하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란, 자신이 먼저 말씀과 성령과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말한다. 밀레니엄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은 변화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다섯째는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는 목회자 리

더십이어야 한다. 천국은 개념이 아니다. 천국은 사실이고 실재이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 완전한 천국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된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야 이 땅에서도 방향하지 아니하고 힘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갈 수 있다. 치명적인 것은 밀레니엄 시대에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천국이 있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밀레니엄 시대에 꼭 필요한 성경적 목회자 리더십은 목회자 자신이 끊임없이 배우는 ‘연구하는 리더십’이다. 진정한 리더는 배우는 자이다. 성경에 대하여, 바른 교리에 대하여, 사람들의 상황에 대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일곱째로 밀레니엄 시대에 꼭 필요한 성경적 목회자 리더십은 ‘기도하는 리더십’이다.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마지막으로 밀레니엄 시대에 필요한 성경적 리더십은 ‘사명적 리더십’(Missional Leadership)이다. 이를 ‘선교적 리더십’이라고도 한다. 이 밀레니엄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시함으로써,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목회자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가는 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밀레니엄 시대에 목회자로 세우심을 받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 명과도 같다(왕상 19:18). 교회의 소망은 올바른 성경적 목회자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밀레니엄 시대에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목회자 리더십으로 바로 무장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명을 바로 감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globalekim@gmail.com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1년 열두달 중에 성탄을 품고있는 마지막 달인 12월이 성탄의 흔적들을 남겨놓고, 2025년 새해에도 다시 올 것이라는 나름의 희망의 손짓을 하며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손짓하며 사라져간 성탄을 품

고 있는 2024년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며 다가오는 2025년 새해로 다가가고 있는 지금, 내년에도 그렇게 다시 오겠다고 손짓하며 사라져간 성탄의 흔적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메시지의 흔적을 떠올리며 다시 찾아올 새해 성탄에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전해질 메시지를 통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렇게 이 땅에 평화가 가득히 깃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제게 아주 간절합니다. 아, 진정한 이 땅에 갈등과 전

쟁이 언제쯤이나 멈출 수 있을까? 세계적인 평화? 아니 그것은 아니더라도 저 조국 대한민국, 언어가 같고 피부색이 같고, 모든 산하가 어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연출하는 같은 땅에서 태어나서 같은 문화권에서 자라고, 함께 된장 고추장 김치를 먹고 자랐고, 코흘리개 때부터 같은 교육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를 함께 다녔는데, 왜 이리도 갈등과 다툼을 일삼고 있는지, 이역 만리 바다 건너에서 제가 태어나 자란 땅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이리도 쓰리고 아프고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가 저 자신도 관계를 맺어가며 갈등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를 셀 수 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아니 크고 작은 갈등으로 다툼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저 때문에 갈등하고 다툼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직면하는 아내와 아들딸들이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 친구와 이웃들이 셀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이 누구를 탓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허물 뒤를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땅에서는 평화”라는 성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통해주시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의 제물로 매다셨습

니다. 그런데도 이 은혜를 입은 작은 제 자신도 자신의 지극히 작은 삶 속에서 평화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갈등하고 다투고 반목을 일삼으니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하는 자책을 해봅니다. 이런 자책에 시달리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걸 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40-42).”



다가오는 새해에 바라는 소망

[재림과 준비를 위한 선교의 새 물결]



김상돈 월드비전 신학교 총장
과테말라 한인교회 원로목사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 10:16)

우리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띠의 해라는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파송을 받았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이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 10:16)

“우리 세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자!”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 자비량으로 땅 끝까지 나가자! 이것은 필자가 DCF(제자선교회)에서 훈련받으며 외쳤던 모토였다. 그때 필자는 수원에 있는 창현고등학교 교목으로 사역하면서 보람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유언하셨으니 모두 선교지로 나가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너에게 가라고 했는데 너는 왜 학생들에게만 가라고 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강하게 울려 왔다. 아내의 반응을 미리 걱정하는 나에게 주님은 “

네 아내에게 가서 인생의 라스트 비전을 물어보라”고 하셨고 아내의 대답은 “당신이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할 때 같이 순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친구가 써준 묘비명을 듣고 1989년 8월 15일에 DCF(제자선교회) 선교사로 과테말라에 도착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이 바울처럼 선교하라는 것이었다. 바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흠여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의 동역의 결과라는 것이다. 과테말라에 도착 직후 한 가정에 한인 성도들 몇 분이 모여 감사예배를 드릴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고 선포하였고, 이것이 “과테말라 한인교회는 전교인 선교사”라는 모토가 되었다.

로잔대회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의 표어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였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시지 않고 12 제자와 70인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훈련하여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다. 요나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준비하고, 경험하고, 시행착오 하며 그 결과를 기다렸으나, 바울은 사역의 시작에서 마침까지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했다.

과테말라 한인교회는 주일 예배 후에 전 교인이 함께 광장에 나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선교하고, 지방을 돌며, 또는 주변 각국을 돌며 전세 버스나, 전세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하였다. 현지인들과 연합하여 하늘, 바다, 땅에서 기도운동을 하며, 미국에서도 다민족 성서화 기도회를 진행했다. 또한, 교회 자체 건물이 없을 때 현지인 교회 건물들을 먼저 지어주었고, 후에 고아원과 그 안에 기술학교도 건축하였다. 물론 우리 이름이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두 현지인들에게 양도하였다. 평신도들에게 선교현장 참여와 훈련을 통하여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풀타임 전문인 선교사들이 수십 명이 배출되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하나의 선교단과 같이 연합하여 함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선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간직할 자들로서 각자의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신앙의 대선배이자 개혁자들의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이다. 예수님은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영의 좌소인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되게 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 우리는 살아 계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야 한다.

Edward T. Hall은 문화는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묘하게도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감춰진 바를 가장 모른다고 한다. 또한, 문화는 우리 모두가 속한 주물 틀로서, 생각지도 못한 무수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은 대부분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풀러신학교 김에녹 교수는 모든 민족은 타민족과 자신을 볼 때 자신은 오렐롱만 만들어 온 렌즈를 통해본다고 한다. 또한, Andrew는 모든 인류는 자신이 자라온 방식에 익숙해 있어서 자생스러운 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타 문화권에 편견과 우월감을 갖

는다고 한다. Heydari는 모든 사람이 자민족 우월주의적 관점을 갖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자기 관점과 문화를 뛰어넘기 어렵고, 심지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익히고, 선교사의 자질을 갖추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각 민족뿐 아니라 각 개인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선교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 3:14) 예수님은 광야의 저주 받은 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속한 옛 신학을 이미 십자가에 죽였음을 인식하고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이 자꾸 살아나기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것이다. 내일부터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가 아니라 왜 매 순간 현재에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다.

그것은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강권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고후 5:14) 만약 내가 죽지 못하면 에덴동산에서의 뱀처럼 영약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뱀처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 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진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산 제물들이 되어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주님 앞에서 각자 받은 면류관의 상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장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bfqusa@yahoo.com / www.lbfq.com Tel: (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한교회</p> <p>담임목사: 김홍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714)44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영어권 (중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동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310)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cl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요</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주일학교: 오전 9:00, 11:00</p> <p>Tel: (949)854-4010 / bethel@bc.com / www.bethel.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사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회</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일 저녁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www.wmcls.com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e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빌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합동목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 (분당)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p> <p>Tel: (562)694-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예배: 365일 24시간 온/오프</p> <p>Tel: (714)446-6202, www.graec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목: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 4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을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송고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홍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평강교회</p> <p>담임목사: 송금란</p> <p>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기도: 오후 1:00 TEE-동요운송(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일 새벽 2:0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p> <p>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노아에게 배운다: 재림과 준비를 위한 새로운 교회 교육]



이희감 목사
Azusa Pacific University 교수

새해의 꿈과 소망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아니 올해는 더 큰 소망과 꿈을 꾸게 된다. 왜 일까? 아마도 지난해의 삶이 매우 고단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새해도 아침마다 똑같은 해가 떠오르고, 하루 24시간의 흐르는 같은 시계소리를 듣고서야 우리는 새해에 대한 새로움을 망각하고 일상적인 시간이 자신을 지배하는 예전과 똑같은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과연 새해는 희망적일까? 희망은 어쩌면 외부 현상에 대한 다른 기대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 현상에 대한 내부 자각을 새롭게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외부의 현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어둠의 세력은 항상 존재했고, 사람들은 늘 갈등 속에서 살았다. 영적 어려움과 시련은 늘 크리스천들을 유혹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믿음을 더 견고히 하거나 혹은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동일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현실의 안락을 추구하는 대다수 사람들과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고 미래의 소망을 추구하고 살아온 소수의 사람들. 두 가지 유형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되어 왔으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어떤 부류에 속할 것인가? 전적으로 각자가 선택할 영역이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2025년 교회 교육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가치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노아에게 받은 교훈

노아의 시대도 바로 그랬다. 현실의 안락을 추구하고 살아온 대다수 사람들의 인성관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오염시켜 나가고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은 점점 죄에 빠져들고 있었고, 세속적인 가치가 땅을 지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 6:2)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

통의 불 경건한 자들의 후손 (경건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체는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혼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들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더 주목하게 되었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육체적 감각을 만족시켜 줄 목적으로 여자들을 보았고 곧 세상의 문화적 시각을 가지고 부패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처음에 셋 족속은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성을 잃지 않고 계속 번성해 갔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셋 가계 내에서도 세속의 가치관에 동조하며, 죄악된 문명에 친숙해 가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한 불경건함이 셋의 후예들에게도 깊숙이 침투하여 마침내 그들마저 세상문화에 완전 동화되고 말았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하여,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 (창 6:3)라고 지적한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 세상 문화에 동조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밋밋한 인성을 인식해야 한다. (마 5:13)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6:4에서 기록한 네피림 송배사상이다.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장부라는 의미이다.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긴 사람, 세상문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매력적인 사람, 요셋 말로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의 자손인 셋을 통해 거룩한 자들로 선택하셨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네피림을 선호하고, 그러한 세상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그들의 눈에 얼마나 세상 문화가 좋아 보였을까? 영화 배우처럼 잘 생기고 성적인 매력이 충만하고, 부자인 네피림을 선호하였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계속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가 되었다" (창 6:4)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용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그들은 일시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에 자신의 영혼을 팔게 되었으니 비록 세상문화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게 되었을 지는 몰라도 그들은 악인에 불과했다. 그들에게는 이 땅 이후의 영원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 자신도 역시 같은 멸망의 길을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까? 하긴 어디 처음부터 악한 인성이 있었리요. 그들도 처음에는 세상 문화와 가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점차로 그들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이제는 세상문화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즐겨하게 되었다.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전형인 것이다.

이것이 비단 노아의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었는가? 오늘날은 어떤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혹시 SAT시험 잘 준비하라고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관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공을 위해 부정적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밋밋한 인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명심하자. 바로 이것이 용사요 네피림의 행태였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 6:5-7) 세상 심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사용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한다. 내 재능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노아 앞에서 세상이 썩었다고 좌절하거나 비난하지 말자. 노아는 온갖 부조리, 악행, 포악, 불신앙의 시대에서도 곳곳하게 120년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참으로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세상과 영합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안에 거한 몇 있는 사람이었다. 노아가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충실하게 실행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가 위대한 교육자였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로 오늘도 찾고 계신다.

노아: 의로운 기독교 교육자

그렇다. 무엇보다도 노아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는 의로운 아버지였고 교사였고, 믿음의 선조였다는 사실이다. 세상이 혼탁하고 자녀들에게 세상문화를 가르치고 동조하는 셋의 후손들과 달리 그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쳤다. 그런 점에서 노아도 그렇지만 노아 아내도 대단히 훌륭한 여인이다. (우리는 그녀 이름도 모른다). 노아는 500세된 후에 셋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창 5:32) 참으로 나이가 들어 낳은 세 아들들, 그 세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얼마나 잘 키우고 싶었을까? 세상에서 평평거리며 모든 위세와 권세,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로 키우고 싶은 욕망이 그들이라도 없었을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노아가 살던 시대에 가장 큰 재산은 자식이었다. 당시 세상이 장대한 남자아이들을 신망했고, 용사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문화의 아이들이 중시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노아도 그렇게 세 자식을 키워 보리라 하는 유혹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단호했다. 그는 세상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시집가는 생활을 지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홍수가 쏟아진 날,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이 상황이 어디 노아 때에만 국한된 이야기인가?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당시 악한 세대와 문화에 동조하지 않고도 믿음안에 올바르게 선 교육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노아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악한 세대에 노아의 의로움이 자식들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에 그대로 순종했던 세 아들들도 참으로 관철은 자식들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노아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했을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해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증거해 주는 의로운 기독교 교육자이다. 노아와 그의 아내도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했고 그들의 세 자녀는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했고, 곧 그들은 인류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세상의 문화를 좇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홍수에 매몰되어 다 죽고 말았다. 한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가능하며, 한 사람의 의로운 리더가 한 나라를 구원한 사례는

지금도 유효하다. 새해의 교회 교육은 바로 이런 의로운 교사에 의해서 미래의 세대가 일시적인 세상 문화를 추종하기 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를 기도한다. 결국 그 힘은 기성 세대가 의로운 길을 보여 줄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내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지만 혹 내가 아직도 세상문화에 취해 있지 않은가? 신앙도 좋지만 세상 가치도 추구하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차지도 못도 않은 무뎠던 신앙으로 인해 오히려 나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차세대 아이들이 혼미한 신앙이 되지 않는지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자.

지금도 유효하다. 새해의 교회 교육은 바로 이런 의로운 교사에 의해서 미래의 세대가 일시적인 세상 문화를 추종하기 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를 기도한다. 결국 그 힘은 기성 세대가 의로운 길을 보여 줄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내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지만 혹 내가 아직도 세상문화에 취해 있지 않은가? 신앙도 좋지만 세상 가치도 추구하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차지도 못도 않은 무뎠던 신앙으로 인해 오히려 나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차세대 아이들이 혼미한 신앙이 되지 않는지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자.

크리스천 교육의 소망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진리는 어둠을 때 더욱 빛을 발하고 힘들 때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이다. 새해 큰 기대가 있지만 그러나 새해도 역시 우리에게서 어려움과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여전히 문화의 힘은 거대한 쓰나미처럼 크리스천들을 유혹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세상 문화를 순종하도록 계속 속삭일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며, 주님이 곧 오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목적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런 영생의 관점을 심어 주기 보다는 현실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지나치게 개인의 성취와 이 세상의 성공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크리스천 교육은 자신과 이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진리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아이들 가슴속에 심는 것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천들에게 이 세상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영원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이 땅은 우리의 선교지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명심하자. 2025년 새해는 노아와 같은 의로운 교육자가 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노아와 같은 인자한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를 아름답게 가르치게 되기를 기도한다.

hlee0414@gmail.com

[시카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민족 사역]

홍귀표 목사
KAPC 전 총회장/다민족교회 담임



나는 대학에 입학하여 어느 날 한 친구의 초청을 받고 성경공부에 참석할 때까지 불신자로 살고 있었다. 성경공부를 참석 후 몇 개월이 지난 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나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였다. 그 때 나는 믿는 자는 마태복음 28:18-20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사명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었다. 신학원에 들어가 신학수업을 하고 졸업을 했지만, 여전히 그 사명을 순종할 길을 알 수 없었다. 1983년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주님은 내가 전혀 계획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이 사명을 순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 이 글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나오 하여금 시카고에서 이 사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는지를 나누고자한다.

다민족 사역에 대한 비전

1987년 가을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UIC)의 학생들 몇몇이 나에게 그 곳 학생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요청을 해왔다. 그 요청에 대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그 해부터 그 대학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다.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한인 1.5세대들이었다. 그들은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를 했다.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사역을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 사역을 시작한 후 약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대학교 학생처장이 주최하는 조찬기도회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였다. 학생 처장실 벽에는 대학교 현황에 대한 많은 자료들과 통계표들이 붙어있었다. 그중 한 통계표에는 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 통계표에는 100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한 대학 캠퍼스에서 100 나라 족속들을 전도할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1:8에서 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하였다,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를 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 글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나오 하여금 시카고에서 이 사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는지를 나누고자한다."

그것은 내가 그때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비전이었다. 그 비전은 내 가슴을 흥분과 기쁨으로 뛰게 하였다. 그 비전이 나오 하여금 다민족 사역을 시작하게 하였다. 그때 부터 나는 그 대학에 와있는 유학생들을 전도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데 동시에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겼다. 다민족 학생들을 전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나의 나이는 36세였고 영어 회화는 초보 수준도 되지 못했다. 내가 한국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모두가 문법 중심의 공부였고 회화

를 배운 적이 없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매주 시간씩 6년에 걸쳐 영어를 배웠으나 간단한 회화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민족 사역의 비전에서 너무나 강렬하여서 마음속에서 지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성경공부지, 실교 노트, 기도문 등을 영어로 써서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영어로 그것들을 준비하는 데는 한국어로 준비하는 것보다 세배 혹은 네배 시간이 더 들었다. 영어로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사역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 학생들이 나에게 영어로 사역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심각하게 건의하였다. 그들은 나의 영어사역이 한국어 사역에 비해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나는 낙심이 되었다. 다민족 사역의 비전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다.

다민족 사역에 대해 확신을 준 하나님의 말씀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극히 제한된 영어 실력으로 말씀을 전하느라고 고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출애굽기의 한 말씀이 떠올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자기가 말이 둔한 자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항거하였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내가 아니냐?" (출 4:11) 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 불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다. 그때 그 말씀이 불처럼 뜨겁게 내 마음에 임했다. 그 말씀

은 내 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혀를 주장하시 영어를 유창하게 하도록 하심으로 모든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셨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 말씀을 책상 위의 벽에, 차 운전석 앞에, 침실 방문에 써 붙여 놓고 계속 묵상하며 붙들었다. 하지만 내 영어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쉽게 향상되지 않았다. 한국 학생들은 하나둘씩 사역을 떠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낙심되었다. 그 무렵 백인 학생 두 명과 몇 명의 다른 나라 학생들이 사역에 나와 열심히 참여했다. 나는 그 학생들의 사역 동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영어로 사역하라는 확인의 사인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낙심을 극복하고 계속 다민족 학생 사역을 해나갔다.

다민족 사역을 위한 성령의 은사

종족과 문화가 다른 학생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나는 그 학생들을 한마음으로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관점의 차이, 태도의 차이, 삶을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들이 하나 뒤를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주님께 어떻게 이런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길 간구하기 시작했다. 어느날 사도행전 2:1-11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성령 충만은 인류를 언어 장벽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일을 깨달았다. 언어 장벽의 저주는 바벨탑을 지은 인류의 교만죄에 기인하였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지어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까지 높이려는 인간들의 행위를 막고 흠이 없게 하기위해 언어 장벽을 만드셨다 (창 11:1-

9).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제자들(그들 대부분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자였다)이 성령 충만을 받고 10개가 넘는 외국어를 말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종족이나, 나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진리를 통해 주님은 나에게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격려해주셨다.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오직 나의 노력으로만 영어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매일 몇시간 씩 계속 영어를 읽고, 쓰고, 듣고, 말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영어로 가르치고 싶고 하지만 영어로 가르치고 싶고 어색하기만 했다. 항상 온전치 못한 영어가 의식되었다. 방언의 은사를 간구하는 동안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벨탑 때문에 생긴 언어의 장벽은 단순히 언어가 불통 되어 인류가 갈라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류가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완전히 막는" 모든 장벽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의사소통의 장벽이 있다.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장벽의 근원은 언어 장벽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에 있다. 바벨탑 때문에 생긴 언어 장벽의 저주의 의미와 성령을 통한 구속적인 방언의 은사를 연결하여, 주님은 나에게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확신을 주셨다. 그것은 내가 모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한다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음으로 영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어 방언의 은사를 구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부족한 영어에 대한 자기의식과 어색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 몇 년 후에 나는 시애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시카고로 돌아오는 길에 아침을 먹으려고 시애틀 공항 근처의 한 식당에 들렀다. 그 식당에서 한 백인 형제와 같은 자리에 동석하여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와 나는 날씨, 직업, 내가 시애틀을 방문한 이유, 그리고 몇 가지 사사로운 것들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 끝에 그 형제는 나에게 고향이 어디라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내 고향은 한국 시골의 작은 마을"이라고 답했다. 그는 나의 대답에 다소 놀라는 기색을 하면서 "그런가요? 나는 당신이 미국 어느 곳에서 태어난 줄로 생각했습니다"라고 했다. 그 당장엔 그의 반응에 대해 별생각을 못했다. 그러나 시카고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형제의 말이 계속 마음에 떠올랐다. 주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 내가 영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느껴졌다. 동시에 마음속에 아주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영어에 대한 걱정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이제부터 나는 미국에 있는 백인들을 포함한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해 너를 사용하겠다."

(다음호에 계속)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h2>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신욱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세례기도회: 오전 05:45</p>	<h3>뉴욕부트클린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02:00 주일 3부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세례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h3>뉴욕갯세마미교회</h3> <p>담임목사: 이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현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h3>뉴욕센트럴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h3>뉴욕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청년부예배: 오후 12: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p>	<h3>뉴욕효신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전 1:30 세례기도회: 오전 5:55(월-토)</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매주 1주 3주)</p>	<h3>베이스айд 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양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세례 기도회: 오전 5:45 전교인본말씀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h3>빛과소금교회</h3>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후 11:50 주일학교 오후 1:50 청년예배 오후 3:20 세례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h3>새벽별주님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월-토)</p>	<h3>온누리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월-토) 오전 6:00</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6:00</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h3>아르헨티나 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저녁 9:00 714종교개혁 기념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h3>토론토 가든교회</h3> <p>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p>	<h3>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8:30(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셋째, 다섯째, 일요일 오후 7:30 금요영양 기도회: 매일 목(금) 오후 7:30</p>	<h3>브라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병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45</p>	<h3>브라질 서울교회</h3> <p>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0</p>
<h3>하와이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h3>멕시코 현지인 교회</h3> <p>선교사: 임함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파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사진은 베델교회에서 2023년 1월에 열린 엘리야특별새벽기도회

신년감사예배 및 새벽기도회로 새해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2025년 신년을 맞는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들이 특별새벽기도, 신년예배로 새해를 맞이했다.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는 신년축복새벽기도회를 1월2일(목)부터 4일(토)까지 가지며 △나성한인교회(신동철 목사)와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는 1월5일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특별새벽부흥회를 12월30일과 31일, 1월 2-4일에 실시하며 5일(주일)에는 신년감사예배를 드린다. △코너스톤교회(이종용 목사)는 3일(금)과 4일(토) 총동원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진다.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는 5일(주일) 신년 주일예배 때 다음세대(유치부, 초등부) 학생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에브리데이교회(손창민 목사)는

1월2일(목)부터 11일(토)까지 ‘인생의 길라잡이,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로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하며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김종규 목사)는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신년축복기도회를 새벽기도회 시간에 가진다.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1월1일 전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신년가정예배를 실시했으며 5일에는 성찬주일로 지킨다. △베델교회(김한오 목사)는 1월 2일부터 4일, 6일부터 11일까지 ‘여전히, Jesus Alone’이라는 주제로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하며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생수의강선교회(최형규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이 외에도 거의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갖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어노인팅교회에서 주최한 소리엘 지명현 목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찬양예배에서 지명현 목사가 찬양하고 있다.jpg

남가주어노인팅교회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예배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

남가주어노인팅교회(담임 남성권 목사)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찬양예배를 지난 12월 22일(주일) 오전 10시30분에 드렸다. 김성택 전도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박성우 집사가 기도했다. 이어 지명현 목사가 찬양과 함께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엡 5:19-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지명현 목사는 “누가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가진 가수가 찬양곡을 부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가 부르는 찬양은 잘 부르는 노래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게 될 것이다. 반면 우리의 찬양이 비록 잘 부르지 못한 노래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의 노래는 기뻐 받으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때 찬송해야 하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도들이 서로 화답할 때 생기가 불어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며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노인팅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찬송할 때 생기가 불어지고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지명현 목사는 ‘축복송’, ‘내 영혼에 그윽히 깊은데서’, ‘성도여 다함께’, ‘낮은자의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불같이 바람같이’, ‘천사찬송하기를’, ‘천사들의 노래가’, ‘참 반가운 신도여’ 등을 불렀다. 이날 예배는 남성권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시전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의 송년모임이 열렸다

시전 송년예배와 간증, 교제시간 가져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전도사)의 성경읽기 카톡모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난 21일(토) 헤이리카페에 모여 송년예배와 간증,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줌으로 진행되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90여명이 참가했는데 매일 성경을 카톡으로 함께 읽으며 그날의 해설도움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독일, 키르기스스탄, 인도, 멕시코, 한국, 미동부 등지에서 참가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성경읽기 그룹을 운영하는 교회들과 그룹들도 다양하게 생겼다. 이날 기도에는 박세현 목사(예수로 교회), 특송은 조미나 집사가 했고 설

교는 정종원 목사(아이앤교회, 꿈이 있는 자유)가 맡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복을 명하여 놓으셨다. 마귀가 못하는 것이 순종이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살리는 지식이다. 아무리 기성자가 그런 비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해도 이 세상 지식을 따라가면 우리는 다 썰려 내려간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산 지식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축복한다”고 설교했다. 이민미 전도사는 “23년 전 벨리에서 사는 어느 집사님이 간절히 원해서 그 집에서 성경읽기가 처음 시작되었고 카톡으로 한지도 12년이 되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다. 함께 읽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다. ▲ 문의: (818)590-6469 (정리: 박준호 기자)

에도 가정사역팀은, 부부의 회복과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 달랠 것 계획이다. (정리: 박준호 기자)



CBMCG정 사역팀 주관으로 제 6차 부부 세미나가 성료 되었다.



LA사랑의교회 성탄 및 첫예배 18주년 감사예배가 열렸다. 사진 오른쪽 위 원안은 주님의 탄생과 교회창립18주년을 축하하는 케익커팅식을 갖는장면

LA사랑의교회 교회탄생 18주년 및 성탄축하예배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하고 높이는 삶이 되길...”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교회탄생 18주년 및 성탄축하예배’가 12월25일(수) 오전 9시30분에 드려졌다. 김기섭 목사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18주년이 되는 날”이라 말하고 “18년 전 첫 예배를 드렸던 그날, 감격스러웠고 감사가 넘쳤던 그 자리가 생각난다. 오늘 예배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귀한 날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2024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새롭게 펼쳐질 2025년 우리 삶의 현장이 격동이 칠지라도 주

님께서 평안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하고 높이는 삶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임다윗 전도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이영섭 장로가 기도했으며 임세권 목사가 ‘빈 방이 있나요?’(눅 2: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차세대 사역원 주최로 성탄축하 시간을 갖고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학생들이 성탄축하 공연을 가진 뒤, 예수님의 탄생과 교회 창립을 축하하는 케익커팅식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기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CBMC 제6차 LA 부부 세미나 개최 돼

CBMC 가정 사역팀 (팀장: 김창곤)이 주관한 제6차 부부 세미나가 지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개최됐다. VIP 부부 8쌍, 그리고 가정 사역팀 부부 10쌍 총 36명이 참석하여 1박 2일 동안 부부의 회복과 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남가주 연합회에서 4부부, 동부 연합회에서 2부부, 남부 연합회에서 2부부가 참석하여 지회원들과 부부들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부부가 살아야 CBMC 가 산다’는 주제로 매년 12월 첫째 주에 진

행되는 부부 세미나는 북미주 KCBMC 사역을 위한,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일터의 변화, 3대 핵심 변화 가치 중의 하나이다. 부부가 회복하고, 변화되고 살아야 가정의 삶과,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아가 CBMC 가 살아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북미주 KCBMC 지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한다. 세미나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난 2년간 가정사역팀장으로 헌신해 온 김창곤 팀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있었다. 향후 2년간 신임팀장으로는 위계승 캐럴린 지회장이 임명되었다. 2025년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은혜이슬 새벽부흥회를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오전 5시30분, 11일(토) 오전 6시에 갖는다. 일정과 강사는 6일(한기홍 목사), 7일(신승훈 목사), 8일(김홍신 목사), 9일(밤 소르기 목사), 10일(유관재 목사), 11일(한 사무엘 목사)이다. ▲ 문의: (714)446-1000

평강교회 창립 44주년 감사예배

평강교회(담임 송금관 목사) 창립 44주년 감사예배가 1월5일(주일) 11시 예배시간에 갖는다 ▲ 문의: (213)393-9136

주님의영광교회 신년축복성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신년축복성회를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213)749-4500

파사데나장로교회 최진영 담임목사 위임식

파사데나장로교회는 최진영 담임목사 위임식을 12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 문의: (626)793-2191

미주한인 이민 122주년 기념 유해란 초청 OC교계 친선골프대회

미주한인 이민 122주년 기념 PK, MK 및 소외계층 후원을 위한 LPGA 유해란 선수 초청 OC교계 친선골프대회가 13일(월) 오전 10시 로스코요테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 문의: (714)686-1441, (714)873-9164



제34대 OC교협 회장단 이취임예배 및 OC교계 송년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사전 우추위 원안은 교협 심상은 이임희장

제34대 OC교협 회장단 이취임예배 및 OC교계 송년회 제5차 선교사자녀장학금 전달식도 가져

제34대 OC교협 회장단 이취임예배 및 OC교계 송년회가 12월29일(주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친교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창남 OC교협 신임회장은 “그동안 교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지역교계와 이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잡아왔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OC교협은 지역교회를 섬기고 지역사명을 품으며 기도하는 본연의 사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 회장은 “연합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송년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LA시티교회 선교목사) 특송, 한기홍 목사(OC교협 증경회장)의 ‘본질에 충실한 사역이 됩시다(요 8:32)’라는 제목의 설교, 심상은 목사 이임사, 이창남 목사 취임사, 취임패 증정 및 OC교협기 이양,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 민경엽 목사(이사장, 나침반교회 담임) 인사 및 이사 소개, 김영수 장로(후원이사장, 은혜한인교회) 인사 및 후원이사 소개,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축사, 35대 회장단 및 임원소개, 임영민 목사(OC교협 증경회장, OC제일장로교회 원로)의 축도로 이어졌다. 윤우경 권사 사회로 열린 2부 선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 및 연합송년회에서는 MK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70명의 장학생들에게 500달러씩 지급했다. 이어 각기관 소개, 특별찬양(무궁화합창단, 아리랑 합창단, OC목사모중창단)으로 이어졌다. 이날 모든 순서는 양금호 목사(교협이사, 전도회연합회 자문위원)의 마침기도로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이원석 목사(OC목사회 직전 회장, 하사랑교회 담임)의 찬양인도와 최국현 목사(OC교협 부회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의 사회로 열린 1부 이취임감사예배는 강문수 목사(OC목사회 회장) 기도, 신용 집사(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 44대 회장) 성경봉독, 아모스 이 목사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장: 김재상 ■ LA지사: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알림

다음 신문은(1월 11일 자) 본지 신년 정기휴간으로 인해 휴간하오니 이점 널리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호 기사는 인터넷 신문에 실시간 게재 됩니다.
www.chpress.net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눈보라가 날리는 어느 추운 겨울 저녁입니다. 영국 런던 시내의 한 악기점에 남루한 옷차림의 한 젊은이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바이올린이 하나 들려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너무나 춥고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악기점 주인은 1기니(단시 약 5달러)에 그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악기점 주인은 그 젊은이가 돌아가고 난 후 악기를

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 한구석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우디바리, 1704" - 그 바이올린은 300년 전에 제작되었던 물건으로써 그동안 행방 불명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못 잡아도 당시 100만 불 값어치는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에 공식적으로 경매에 팔린 스트라우디바리 바이올린의 가격은 1,590만 달러였습니다. 악기점 주인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하려고 급히 가게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그 젊은이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단돈 5달러에 처리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 젊은이가 자기가 가진 바이올린이 이런 엄청난 보배였다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뻐하며 소중히 여겼을까요?

우리가 우리 심령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생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들판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눅2:10)" 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마귀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사방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고 말씀 하십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대구 불교신도회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개종하고 교회 집사로 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한평생 민던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자기가 교회에 한 번만 가보자고 조르는 친구 때문에 난생처음으로 교회당 문턱을 넘었는데 강대상 오른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고백했습니다.

참된 위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생고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내 무거운 짐 벗겨 주시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짐, 죽음의 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놀라운 자유와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영생을 얻은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songpak@hotmail.com

신앙독후감 공모전 최우수상

기도는 영적인 연결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를 읽고



배홍철 집사 (런던 한인일일교회)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신앙도서 독후감공모전이 10회를 맞아 지난 12월 5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매년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홍철 목사는 "시간이 갈수록 매우 훌륭한 글들을 볼 수 있었다"며 수상자들을 치하했다. 본지에서는 2024년 수상자들의 작품을 게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올해 여름,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번 제 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에 참여해 보라고 권유하셨다. 나는 주전된 도서 7권 중에서 제목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과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책을 펼쳐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프롤로그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명쾌한 기도의 정의였다. 저자 최상훈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를 비교하며 명확히 설명한다. 이슬람 신자나 불교 신자가 몇 년씩 매일 몇 시간씩 지극정성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 어떤 기복신앙적인 요구나 바람을 위한 수단

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더 깊은 친밀함과 관계를 위한 "영적인 연결"이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17절에 나와 있듯,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나라"를 목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 책에서 펼쳐지는 아프리카, 알라스카, 등 전 세계에서 저자의 간증, 하나님 앞에 앉아

그 입재 가운데 보내는 그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최목사님 부부의 삶에서 이 건강한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나는 인간이 "연결"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지식이나 재미뿐 아니라, 저자와의 소통과 교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 같다. 영화나 컴퓨터 게임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그 재미와 감동들은 사실은 그 매체의 창작자들의 소통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닐까?

왜 나는 닌텐도 게임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게임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디자이너들의 세심한 배려와 창의성이 느껴져, 그들과 소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인 것 같다. 마리오와 젤다뿐만 아니라, "WarioWare"나 "리틀 천국" 같은 게임들도 그 속에 닌텐도만의 특별한 감성이 깃들여 있다. 게임을 할 때마다 창작자들이 작은 디테일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상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과 연결되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애플 제품 또한 마찬가지다.

나는 단순히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맥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제공하는 일관된 경험에 감동을 받는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섬세한 설계에서 애플의 철학과 사용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래서 애플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그것들을 디자인 한 애플 엔지니어들이 나와 소통하고 있다는 특별한 감각을 얻는다.

결국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단순히 어떤 제품이나 작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창작자나 디자이너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과의 교감을 찾고자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은 어떠할까? 히브리서 3장 4절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이시라"라고 말한다. 처음 유럽에서 과학이 발달했을 때에도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 역시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면서 창조주와의 연결에 감동했고, 그로 인한 찬

송 (doxology)을 찬송으로 남겼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 그렇지는 않은가? 인생과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 말로 표현 할 수 없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소통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하여 같이 파트너링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이 책의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기도의 큰 상급인 것이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주제는 최상훈 목사님의 다음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쌓아온 기도를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은혜로 부여하셨다." 저자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증명해 나간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기도들이 성인이 되어 현재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작용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최상훈 목사님은 기도의 소중함을 삶으로 살아내는 분이시다. "한 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두 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세 시간 기도하면 크

게 쓰임 받는다"라는 표현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의 구성도 인상 깊었다. 프롤로그에서 기도의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고, 그 후 에피소드 형식으로 그 내용을 풀어어나가는 방식이 독자로 하여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기도에 대한 딱딱한 정의나 이론보다 이야기 형식을 통해 독자들이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는 기도에 대한 최상훈 목사님의 많은 인사이트들이 녹아져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통성기도의 파워를 체험한 이후 틈만 나면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통성기도를 자주 하려고 했지만 왜 그것이 중요한지 표현을 정확히 못하고 있었다. 최상훈 목사님은 통성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통성기도를 훈련하는 이유로 다음을 말씀하신다: "소리가 열려 간절함을 쏟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통성기도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분명히 진짜 통성기도와 그렇지 않은 통성기도를 잘 정리해 주고 있다. 진짜 통성기도는 인간의 "결의에 차서 비장하고 엄숙하게 소리만 지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기쁨에 차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으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다.

책에서 얻은 또 하나의 깨달음은 기도의 가치에 대한 저자의 통찰이었다. 우리는 서류는 서류함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 금

제단에 올려진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이며, 이 깨달음은 내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결단을 주었다.

저자는 오랜 선교와 목회 경험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반 성도들이 기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과 습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도 통상" 제도를 통해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는 그의 경험은 나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부분은 순종하되, 중간에 멈추서는 안 된다.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가르침은 나로 하여금 기도할 때 더욱 인내하며 순종하게 만든다.

현재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올해 초부터는 하나님 은혜로 새벽기도를 시작해서 지금은 8-10명의 영국 교인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월수금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고 있다. 찬송가, 책읽기 말씀 묵상,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한 통성기도로 새벽기도 모임을 인도하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은 기도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연결과 친밀함이야말로 나의 새벽기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이 책 제목처럼 기도의 영원성과 그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에 깨어 있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listing churches: 갈보리장로교회, 말씀한인장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벨벳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알칸사 제자교회, 앵커리지델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노드리교회,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6 columns).



아이패드 드림 연주하는 개척교회 목사 영상 "합시다!" 인스타그램 숏츠 영상 조회수 110만 기록

한 개척교회 목회자가 아이 패드를 악기 삼아 현란한 손놀림으로 선보인 드림 연주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다. 강대상 앞에서 드럼 악보에 맞춰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며 연주를 이어가는 동시에 찬양까지 부르는 개척 목회자의 열정적인 모습에 네티즌들은 "주님께 드리는 가장 멋진 연주"라며 감탄을 쏟아냈다. 인스타그램 숏츠 영상 조회수 110만을 기록한 이 영상의 주인공은 대구영광교회(41) 목사이다.

에 전자 드럼은 있지만 연주할 봉사자가 없어 대학교 시절 배웠던 드럼 경험을 살려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으로 기본 리듬을 연습해 연주를 시도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2018년 세워진 대구영광교회는 대구 평리동에 자리하고 있다. 김 목사는 "평리동은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힌다. 최근 재정비 촉진 사업을 통해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변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의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는 이 지역에서도 가장 저렴한 상가를 빌려 세웠다.

현재 출석하는 성도는 약 20여 명으로 대부분이 60대 후반에서 80대에 이르는 고령층이다. 함께 사역을 분담하며 균형 있게 감당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김 목사는 홀로 드럼을 치며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작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할을 감당하며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은 개척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는 "새 신자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개척교회의 특성상 성도 한 명 한 명의 역할과 헌신이 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 교회를 선택할 때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함께할 동역자가 없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대구영광교회 성도들은 김 목사의 헌신을 진심으로 격려하며 그의 드림 연주에도 따뜻한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현실은 힘겹지만, 성도들의 진심 어린 지지와 격려는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김 목사는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기쁨을 느낀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가족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길 기도해"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발표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30일 "유가족을 위로하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란다"며 "정부에서도 신속한 대응과 대책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최근 일어나서는

안되는 대형 항공기 사고가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며 "지난 29일 제주항공 소속의 비행기가 태국 방콕에서 출발하여 전남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79명의 고귀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혹은 여러 가지 목

적을 마치고 여행에서 돌아오다 이런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마음깊은 애도를 표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한다"며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에게는 수많은 애절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 가족들이 슬픔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나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정치권에 의하여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태"라고 짚으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맡았던 국무총리까지도 탄핵을 당했고,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어, 선장 없는 배가 조난을 당한 것 같아 더욱 아픈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미움도 사랑이 되고, 절망도 희망이 되니, 한탄스러운 우리나라 현실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간구한다"고 덧붙였다.



청심환 찾는 유가족에 가슴 아파... 슬픔 있는 곳에 함께할 것

한국교회 발걸음이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향했다. 지역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기독교연합회(회장 조현삼 목사) 한국교회봉사단(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등은 현장을 찾아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고생하는 모든 분에게 지속해서 손을 내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스에서는 생수 컵라면 각종 음료와 과일 치약 칫솔 등 긴급 구호 물품이 유가족과 취재진 봉사자들에게 제공된다. 유가족들은 전날부터 공항 1층과 2층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다. 복도에 의자 수납개를 놓고 쪽잠을 자며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무안기독교교회연합회 총무 조인성 목사는 "공항 여기저기서 유가족의 통곡과 탄식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오전에 시신을 확인하러 간 유가족이 청심환을 부탁하는 등 마음 아픈 상황이 이어져 차마 다른 얘기는 못 하고 '힘내세요' '한국교회가 함께합니다'라는 말만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이어 "어떤 시민은 어묵탕 100인분을 끓여왔는데 함께 나

눠달라고 힘을 보탤다"며 "한국교회가 연합해 부스를 차리고 나니 찾아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많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남 교회총연합회(대표 권용식 목사)와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박성신 목사)도 구호에 합류했다. 2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생활품을 차량 3대로 공항에 실어 날랐다. 권용식 목사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며 "한국교회 사랑이 유가족과 관계자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사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중혁 목사) 무안노회 소속 목회자 20여명이 오전 오후 야간으로 팀을 나눠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운동 청계중앙교회 목사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며 "유가족들과 현장에 있는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를 통해 지원금을 전달한 한국교회봉사단은 유가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무안공항에 밥차를 보내는 것과 유가족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사 파송도 논의 중이다. 김철훈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은 "큰 충격에 빠진 유가족들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기에 심리상담사를 통한 마음 치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해 앞두고 '특별기도회' 줄줄이 신년사경회 트렌드는 '사랑 회복 용기'

'사랑과 회복, 용기'는 한국교회 신년기도회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새해의 신앙 방향성이다. 교회는 특별새벽기도회와 신년부흥회를 열고 혼란스러운 시국을 기도로 극복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를 주제로 한다.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는)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셨음을 전하며 기도회를 통해 그 사랑을 교회가 알도록 함이다.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넘어 실천하라는 빌립보서 4장 4-9절 메시지를 기도를 연다. 새문안교회의 '신년비전새벽기도회'

회복과 동행을 강조하는 기도회와 사경회도 눈에 띄었다. 경기도 성남 갈보리교회(이웅조 목사)는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마련했다. 갈보리교회는 신년특별새벽기도회의 주제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 6:1)'로 잡았다. 2025년도 갈보리교회 신년표어이기도 한 주제는 신앙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에 집중할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구 수성구 범어교회(이지훈 목사)는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2025년 신년특별'을 진행한다. 다음 달 6일부터 나

흘간 진행되는 행사는 성도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부산 호산나교회(유진소 목사)는 '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년 특별새벽집회 핵심 구호로 삼았다. 오는 2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집회에서 교회는 다도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이 되고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비극적이고 불확실한 일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기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들도 엿보였다. 서울 마포구 높은뜻광성교회(이창호 목사)는 '하나님의 비참소집에 응한 사람들'을 제목으로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신년사경회를 진행한다. 김기석 청과교회 원로목사가 참여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룩한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 말씀을 나눈다.

대구 수성구 동신교회(문대원 목사)는 예배소서 3장 12절 말씀을 인용해 '믿음으로 담대하게'를 제목으로 신년특별기도회특별집회를 드린다. 감사로서는 문대원 유기성(위지엠) 안광복(청주상당교회) 이인호(더사랑의교회) 목사가 인생의 폭풍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폭풍을 넘어가는 경험과 그러한 상황에서 불잡을 말씀을 집회를 통해 밝힌다. 집회는 다음 달 3일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이어진다.

'참여율 4.5배↑' ...총신대, 생명나눔 확산에 앞장선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MOU 체결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가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기기증의 가치를 캠퍼스와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인식 개선에 협력할 계획이다.

여했다. 이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올해 진행한 대학 캠페인의 평균 참여율(2.5%)보다 4.5배 높은 수치로 청년세대 생명나눔 실천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총신대는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지원과 교류, 교직원

과 학생이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 협력, 교내 생명나눔 캠페인 진행을 위한 장소 제공 등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민선 총신대 지역사회봉사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장기기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고, 생명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나누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신대는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달 5일부터 3일간 본부와 함께 '사회봉사의 날' 행사를 열고 '생명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전체 재학생의 약 11%에 해당하는 학생 155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동남아시아	\$240
유럽	\$240
남미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	_____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	_____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

Happy New Year 2025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 (714)521-4636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일철 3523 Johnson St High Point, NC 27265 Tel. (336)841-8439 www.kpcgnc.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홍철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el. (213)481-2779 www.srcla.org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9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www.bkc.org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목사 Tel. (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 (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 (323)-737-3009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G100 Honolulu HI 96817 Tel. (808)585-1859

2025 새해에 온 가정과 교회에 은혜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장로교회

Sanctification Presbyterian Church

- 성경읽는 교회
- 기도하는 교회
- 찬송부르는 교회

“주를 기쁘시게 하라!”

골로새서 1:9~12

성화장로교회 www.sunhwachurch.org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Normandie Ave. + 158th St)



담임 이 동 진 목사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탕감해 주시는 은혜 (눅 7:36-42) 찬 436장

한 바리새인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다.

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 바리새인은 그 여인의 범한 죄를 알고 정죄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탕감하여 주신 분이시다.

화 정죄함이 없는 은혜 (눅 7:47-50) 찬 368장

예수님은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인이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알고 받았다. 주인이 죄를 사하여 주심을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께 배부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 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수 말씀의 실상이 나타나도록 수고하라 (눅 8:5-8) 찬 250장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서 실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씨 안에 있는 생명의 실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는 것이다. 두려워 한다. 씨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 말씀의 실상이 나타나야 한다. 그 실상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

목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 (눅 8:22-25) 찬 370장

광풍으로 인하여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상황이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진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만물은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질서를 알아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기를 내 인생에 약속하신 주님이 항상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금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품고 고백하라 (눅 8:43-48) 찬 406장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에게 나오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게 하신 것이다.

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주님이 하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육신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지체 (눅 9:1-2) 찬 421장

전능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서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제자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나게 하신 것이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주님이 연합하여 주님의 생명이, 영광이, 은혜가 나타나시는 것이다. 거룩한 지체가 된 것이다.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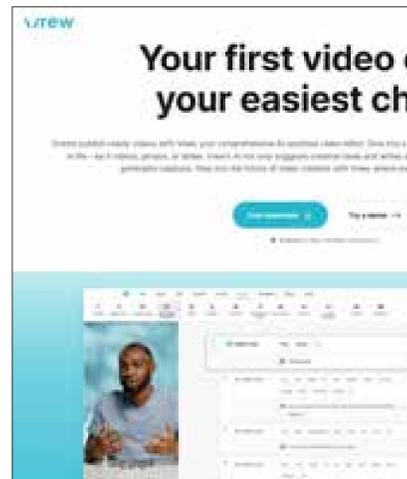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 도구 활용

Generative AI (생성형 AI) 도구들에 대한 종류와 목회와 선교적 활용 (7편)

8. Text to Video (TTV) AI 기술 (전편 계속)

특히 Vrew AI (https://vrew.ai)는 한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의 비디오 편집 도구이다. 이 도구는 자동화된 자막 생성, 음성 인식, 텍스트 분석 등을 통해 비디오 편집 작업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있으며 저렴한 유료 옵션으로 소규모 팀이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적합하다.

이러한 Text to Video (TTV) AI 기술들을 활용하여 설교 내용을 요약한 자막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선교 콘텐츠에 자막을 추가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접근성을 높이는 복음 메시지 자막 추가, 성경공부나 제자 훈련 영상에 자막을 삽입해 교육 효과 극대화.

VREW Website (https://https://vrew.ai/en/)

VREW는 영상 편집시 자동 자막 생성과 간단한 편집 기능으로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 AI가 영상의 오디오를 분석하여 정확한 자막을 빠르게 생성하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여 글로벌 콘텐츠 제작에 유리하다.

VREW의 가장 장점은 기본 기능을 모두 제공해 주는 무료 버전이다. 개인 사용자에게 적합하며 무료 버전에서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dr.jameskoo@yahoo.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

Happy New Year 2025

뉴욕그레이트넥교회
 담임목사: 양민석
 715 Northern Bl.,
 Great Neck, NY, 11021
 Tel. (516)466-8063

뉴욕동원교회
 담임목사: 박희근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Tel. (718)321-9199

뉴욕만나교회
 담임목사: 정상철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Tel. (917)750-817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917)373-3411

뉴욕선교로교회
 담임목사: 김경수/박병섭
 67-02 Woodside Ave.,
 Queens, NY 11377
 Tel. (718)490-6316
 www.lmcony.org

뉴욕성실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석희
 45-31 220th Place,
 Bayside NY 11361
 Tel. (646)641-2247

뉴욕수정교회
 25-67 College Point Blvd,
 Flushing, NY 11354
 Tel. (718)461-9800

뉴욕심포니교회
 담임목사: 신동기
 42-70 156th St.
 Queens, NY 11355
 Tel. (646)339-0196

뉴저지 열린문 교회
 담임목사: 허민수 목사
 150 Park Ave.
 Leonia, NJ 07605
 Tel. (201)944-6747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욕좋은교회
 담임목사: 정인수
 61-72A 223rd Place #23A
 Bayside, NY 11364
 Tel. (646)238-4883

뉴욕주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임병순
 46-17 160st #1F
 Flushing, NY 11358
 Tel. (917)767-919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Tel. (718)762-5756
 www.hyoshin.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Tel. (303)422-695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 (610)222-0691
 Fax. (610)222-0692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Tel.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센터빌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용호
 25454 Gum Spring Rd,
 Chantilly, VA 20152
 Tel. (703)581-9235
 www.koreanpcc.org

시애틀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목사: 우광필
 17800 36th Ave. W.,
 Lynnwood, WA, 98037
 Tel. (425)510-8526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45-02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1904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10 Oak Street,
 Orangeburg, NY 10962
 Tel. (845)359-1458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주안예교회
 담임목사: 임영건
 4021 159th St #1,
 Flushing, NY 11358
 Tel. (631)327-8046

지역교회부흥선교회
 대표: 허윤준 목사
 Tel. (718)637-147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www.kapcq.org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삼
 100 Herrmann Pl,
 Yonkers, NY 10710
 Tel. (914)961-9250
 www.nydongsan.com